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한복음 3:1-15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학자나 정치인, 세속적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사회의 거물급 인사인 니고데모가 어느 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1-2)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사회적인 신분에서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1. 그는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은 ‘분리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다르다” 는 인식이 항상 가지고 있었으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경건생활을 이어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약 6000 여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70 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막강한 권력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3.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시신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요 19:39)**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지도층에 속해 있으면서, 부와 명예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2)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위의 니고데모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경건생활을 해오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는 종교적인 열정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었기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 3:4)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영적인 의미가 아닌, 인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 3:5-7)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노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세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6)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 1:23)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교회의 일차적인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교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이 풍성해 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물로 거듭나다’는 말은 ‘씻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씻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번째 던지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는 나오고 있으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인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닥뜨린 경험, 즉 철저한 ‘회개’가 포함되지 않은 간증은, 더 이상 간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드릴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부모님의 육신으로부터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 역시, 우리의 자발적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앞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 장 39-42 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 값비싼 향유와 세마포로 감싸고 안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진리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말씀과 회개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죄로 가득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내가 만약 니고데모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갈 용기가 나에게 있었을까요?
2.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니고데모처럼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거듭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